

아하 김두경 포스트모던 한글 서예전

한글 서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서체 '상형한글' 소개

전통서예와 현대디자인 원리를 응용, 한글에서 다양한 상징성과 조형성을 창조해내는 작품으로 알려진 김두경 작가가 전주 시 영화의 거리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숙) 초대로 16번째 개인전을 한다.



김두경 작가

한글날이 있는 10월 한 달간 '아하 김두경 포스트모던 서예전'이라는 다소 생경한 타이틀의 전시다. 이 전시를 통해 김 작가는 다시 한 번 서예의 새로운 지평들을 소개한다.

김 작가가 개발한 상형한글 서체와 문자추상 작품에 지금껏 서예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와 방법 등을 융합한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 큰 특징이다.

상형 한글 서체는 작가가 2008년 서울 인사동 개인전을 통해 서예계에 새로 내놓은 한글 서체다. 상형문자가 아닌 한글에서 상징성과 조형성을 포착해 상형문자 느낌을 이룬다. 이를 계기로 보는 글씨 읽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접점을 만들었고, 그 후 현대 디자인에 응용력과 활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르르-문자추상 상형한글서체.

상형한글 작품은 언뜻 보면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읽을 수 있는 문자로서 문화상품 디자인에 의미를 더해주는 효과도 있다. 이는 동양 예술의 꽃 서예라는 수식어를 많이 쓰면서도 활용 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던 한류문화산업디자인에도 신선한 충격을 전하고 있다. 특히 한류문화와 상품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활용도가 더욱 기대 된다.

뿐만 아니라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삼위일체 예술(trinity art) 서예도 선보인다. 삼위일체 예술 서예는 작가의 서예작품에 평소 찍어둔 사진작품이나 여러 분야 다른 작가 다양한 작품 사진 등을 컴퓨터 융합작업을 통해 만들어 내는 예술 장르로 현대 디지털 시대에 비로소 가능해진 포스트모던 서예라 할 수 있다.

이 서예는 김 작가가 2020년 전시(10월 삼진강 물 문화관, 11월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을 통하여 처음 시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검정의 무채색 예술로 인식되던 서예를 화려한 디지털 예술로의 변신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작가는 "삼위일체 예술 서예는 서예의 장식성과 디자인 감을 높여 보다 쉽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침체된 서예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작품 영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캔버스와 아크릴 컬러, 차선도색용 재료 등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서예에 적용한 작품도 선보인다. 일례로 김 작가는 서예와 빛 반사 재료를 결합하는 등 작업을 통해 새로운 서예작품 감각과 더불어 다양한 생활영역으로 서예를 끌어들이며 서예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제7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포스터.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온라인 공모전

10월 1~29일까지 4세 이상 유아~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 대상

군산시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술 재능을 개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 가천문화재단(이사장 윤성태)에서 '제7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를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한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가천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군산시, 군산시의회, 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대상은 유아(4세 이상)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시상도 부문별로 이뤄진다.

이번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저학년(유아부, 초등학교 1~3학년)은 8절,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은 4절 도화지에 (박애·봉사·애국) 중 원하는 주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린 후 우편을 이용해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운영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부문별(유아, 초·중·고 구분, 각 대상·금상·은상·동상·입선 선정)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500여 명을 선정하고,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전라북도지사상(각 부문 대상)을 비롯해 군산시장상, 군산시의회의장상, 군산교육장상 등 다양한 상장과 작품집, 부상이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요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2014년 모교 대야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개최됐다. 매년 군산은 파호수공원에 학생과 가족 등 1만여 명이 상이 참가하는 가족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공모전으로 진행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무주군 지역문화예술인 공연·전시 진행

음악밴드 주계음우회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역교류·연합전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무주군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움직임이 주민들에게 기운을 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민들로 구성된 음악밴드 '주계음우회'에서 오는 10월 3일까지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해당일 12:30~13:30)을 진행하며 4개 분야 21개 동호회가 연합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서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한다.

우선 주계음우회(회장 김내생)에서는 27일 설천면 장남을 맞아 삼동봉장터에서 공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으며 29일에는 부남면 풍경민박에서, 10월 1일에는 적상면 머무와인동굴,

2일에는 설천면 구천동관광특구, 3일에는 무풍면 대덕산장터에서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들은 "힘들고 우울할 때 음악만큼 좋은 위로도 없다는 생각에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좋은 취지가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매년 최고의 공연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회장 이정숙)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회북미술관 기획 전시실에서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0일까지 열리는 '산골전시회(지역 간 교류전)'에서는 전라북도 동부권 3개 지역(무주, 진안, 장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9개 동호회 회원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31일까지 열리는 2부 '함께해요, 생문동'에는 덕유산꽃차, 망치정코아트, 바늘여행 등 무주군 관내 15개 동호회(전시관련 분야) 회원들이 내놓은 1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모두가 위축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연과 전시가 큰 위로를 될 것"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개최가 되는 공연과 전시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라좌도진안중평국 무관중 유튜브 녹화 공연

진안군은 오는 10월 3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야외공연장에서 전라북도 중요 무형문화재 제



국립민속국악원, 연희부 기획공연 '호호굿'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10월 2 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에서



7·8호인 전라좌도진안중평국 공개 시연회를 갖는다.

전라좌도진안중평국은 지난해 전라북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지정 후 첫 공개 행사를 마련 공연으로 계획했으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무관중 공연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공연은 진안중평국보존회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10월 4일부터 녹화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1946년 광복 1주년 기념 전국 농악 경연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2008년 한국 민속 축제 국무총리상 수상까지 각종 경연대회 우승 이력을 갖는 진안중평국은 과거 전라좌도 지역 및 호남 동부 산간지역 농악의 전통과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승철 전라좌도진안중평국보존회 회장은 "현장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중평국의 쇠가락 타법과 울림의 역동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연회 이후에도 정기적인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문화재단, 동문길 아트투어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0월 8일~3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4시부터 21시까지 총 8회에 걸쳐 동문길 일대에서 '에임리스 원더링' 동문 골목길 미술산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임리스 원더링'은 산책하듯 편안히 걷는 행위로, 동문길 곳곳의 문화공간을 산책하듯 둘러보시며 코로나19 위축된 시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여유를 되찾고, 침체된 동문예술거리의 문화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된 힐링 아트투어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미술주간 연계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도슨트가 함께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더한다. 투어코스는 교동미술관을 시작으로

로 백회길거리, 동문창창, 동문길60, 동문길50(전주시민빌더)으로 구성된 도슨트투어 프로그램과 개별 식식 후 저녁 프로그램(원데이 클래스 또는 전주난장 관광 중 택1)도 제공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예약은 10월 1일부터 열리는 네이버 예약폼(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576487)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동문 골목길 미술산책' 프로그램은 동문예술거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 내 문화시설과의 협력 방안을 고민하면서 설계한 프로그램이다"면서 "COVID-19 시대에 대응한 거리두기형 문화프로그램으로써 동문길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근대역사문화거리의 추억과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작업복
단체복

여성기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명찰, 로고
각종 인쇄**

**판촉물
기념품**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